

섬진강 예술인마을 입주작가 초대전

순창군, 12월 31일까지 섬진강 미술관서 양은정·오종은 작가 서양화 작품 전시

순창군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섬진강 장군목 일대를 예술적 감수성을 더한 새로운 공간으로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며 섬진강 미술관에서 예술인마을 입주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

초대전은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섬진강 미술관에서 열리며 양은정·오종은 작가의 서양화 작품 등 35점이 전시된다.

양은정 작가는 2020년 순창미술발전소 대표로 우리동네 공공미술 사업을 40명의 작가와 함께 완성했고 현재는 섬진강 예술인 마을 입주작가가 되어 마을사업과 디카시집 발간 등 섬진강 일대 스토리텔링 그래픽 만들기 작업에 힘쓰고 있다. 이번 초대전에서 발효의 찬란한 신비로운 빛깔을 오방색의 화려함과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 향이리로서 표현했다.

오종은 작가는 회화와 설치미술을 전문으로 하며 2019년 '지극히 사적이고 부질없는 것에 대하여' 2018년 'Pray to Heaven'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2022년에는 터키 이



섬진강 미술관 기획 초대전 포스터

스탄불에서 개최한 '한-터키 수교 65주년 기념 미술교류전'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아트 캐피탈 살롱 공바레종 2022'에 참여했다.

한편, 군은 시골마을에 점차 젊은 청년들이 사라지고 성장동력이 약해지면서 외부의 젊고 생동감있는 작가를 수혈해 마을의 생기를 더하고 지역민이 문화예술에 좀 더 친숙히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지난해 예술인

마을을 조성했다. 예술인 마을에는 현재 6명의 작가가 입주해 예술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특히 섬진강 예술인 마을은 앞으로 섬진강이 흐르고 1.5km에 걸쳐 기암괴석이 놓여있는 자연환경을 갖춘 터라 작가들이 작품활동을 하는 데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또한, 초대전이 열리는 섬진강 미술관은 군이 사업비 14억을 투자하여 적성면 평남리 483-1 일원에 면적 1,540㎡, 건축면적 240㎡ 규모로 전시실과 문화체험실을 갖춘 미술관 1동을 조성했다. 올해 4월 완공되어 군민들에게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순창을 찾는 도시민들에게는 일상에서 쌓인 피로감을 씻어줄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성과 혼이 담긴 작품을 선보여준 두 작가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군민들께서도 섬진강 미술관에서 새로운 예술세계를 감상하고 삶의 활력을 얻길 바라며 순창의 아름다운 자연과 호흡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대 송창호 교수 역사 '세종도서' 선정

6년 인고의 시간 거쳐 번역 '사람 해부학의 역사'

전북대학교 송창호 교수(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의 역사(譯書)인 '사람 해부학의 역사'가 2022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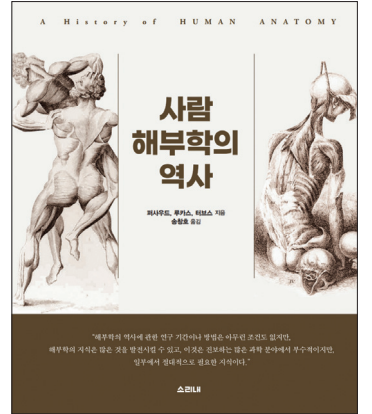


송창호 교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매년 교양 및 학술도서로 가치가 높은 도서를 '세종도서'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책은 송 교수가 원작 'A History of Human Anatomy'를 6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 번역한 것이다. 인명과 지명, 서명은 물론 전문 용어들까지 쉬운 한글용어로 번역해 전문 의료인이나 전공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900여 개의 참고문헌과 350여 개의 그림이 포함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뛰어넘는 해부학의 발전 과정이 정리돼 있어 인체 구조나 해부학의 역사 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람 해부학의 역사' 표지

한편, 송 교수는 35년 동안 의학(해부학)을 전공, 연구와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과 전문성에 기반해 2015년 '인물로 보는 해부학의 역사'를 시작으로 2019년 '해부학의 역사, 고대 그리스에서 허비시대까지' 등의 번역서를 출간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달콤한 위로, 초코파이" 공연으로 가족 의미 되새겨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소리문화창작소 신 공동기획 창작 뮤지컬 3일 진행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사)소리문화창작소 신이 공동기획한 창작 뮤지컬 '달콤한 위로, 초코파이'가 오는 3일 전당 연지홀에서 선보인다고 전했다.

'달콤한 위로, 초코파이'는 초코파이의 원조격인 전주 초코파이를 소재로 가족과의 갈등과 사랑 등을 감동적이면서 유쾌하게 풀어낸 작품으로, 연출과 출연진, 무대 기획 등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순수 창작 뮤지컬이다.

이에 따르면 이 작품은 전주에서 초코파이를

처음 만든 실제 인물의 이야기를 각색해 현실감을 더한다. 작품은 1980년대 중반, 전주시 팔달로에 있는 만오제빵소를 배경으로 한다.

25년 전 아들 동오의 화재 사고로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제빵소 사장인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치매 초기 증상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들 동오가 아버지의 삶이 묻어있는 제빵소를 이어 받기 위해 화재 사고를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는 화재 사고 트라우마로 아들의 선택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부자간의

갈등이 유발된다.

더욱이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새로운 메뉴로 '달콤한 초코파이'를 만들어낸 만오가 한순간의 부주의로 제빵소를 불태울 뻔 한다.

25년 전과 같은 상황에 빠진 아버지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아들과 마주할까. 한편, 작품 속 주목같은 10여 곡의 순수 창작곡과 추억을 일깨우는 80년대 중반을 재현한 무대. 그리고 공개모집을 통해 캐스팅된 배우들의 열정적인 연기 또한 기대가 되는 작품이다.

/장은성 기자

'세계한인경제인대회 트레이드 쇼' 서 전주대 K-디저트 시식 행사

세계한인무역협회(회장 장영식)가 주최한 제26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트레이드 쇼(Trade Show) 행사에서 전주대학교 K-Food산업연구소와 한식조리학과가 K-디저트(한식디저트)를 선보이고 시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시식 행사는 월드유타가 회원들 간의 수출관객 및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처음 시도한 트레이드쇼 행사로, 전통과 현대 조리법을 접목한 병과류인 구움야과, 영양할떡, 신양삼 다식과 생강에이드 등 5종의 한식디저트를 선보였다. 특히 시식행사에는

800여 명의 참가자가 몰려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신정규 학과장)는 국내는 물론 세계에 퍼져있는 대사관과 문화원 등에 많은 졸업생을 한식조리사로 파견해 한식의 홍보 및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의 연구기관인 K-Food연구소(김수인 소장)는 전통적인 한식문화의 현대화 및 세계화를 위한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해외에서 진행되는 여



러 행사에 초대돼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장은성 기자

소극장 지원사업 선정단체 '창작소극장' 연극 공연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에서 시행하는 소극장(소공연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작소극장(대표 박광천)이 연극 '비뚤'을 무대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시 경원동에 위치한 창작소극장은 1990년 개관 이래로 수백 편의 연극을 공연했다. 정통 연극에서부터 대학교 동아리극에 이르기까지 장르와 출신을 불문하고 만인의 극장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온 단체다.

재단에서 시행하는 소극장(소공연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작소극장이 준비한 공연 '비뚤'은 2018년 신춘문예 희곡 부문 당선작으로, 당

시 심사위원으로부터 '당장 공연으로 만들어도 손색없을 만한 희곡'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연극 '비뚤'은 사람을 피해 1년간 칩거하던 주인공 용식이 비뚤으로 인한 참을 수 없는 간지러움을 해결하려 미용실을 찾아가면서 벌어지는 인간적인 이야기를 유머와 감동으로 풀어낸다.

'비뚤'은 창작소극장에서 오는 13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티켓은 현장 발권 또는 카카오톡 채널 '창작소극장'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가격은 1만5,000원이다. 카카오톡 채널 '창작소극장' 친구추가를 통해 예약할 시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완주군, 문화도시 박람회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완주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 전국문화도시협의회가 주최한 '2022문화도시 박람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31일 완주군에 따르면 문화관광체육부는 법정 문화도시를 대상으로 21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고, 이번 수상은 완주군이 1위인 선도도시로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완주군은 문화도시 조성에 있어 주민이 제안

한 사업을 주민이 심사하는 '주민배심원제', 집 가까이에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풀뿌리 문화공간 조성'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주민이 기획·실현하는 지역문화 주제로 참여해 관심을 끌었다.

또한 문화공동체 육성을 통한 사회혁신형 지역발전과 도농복합도시 완주의 특성을 살린 사업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원주=이종복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